

## 부부의 원가족 특성과 고부·옹서 갈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유 연 지<sup>†</sup>

SK 텔레콤

조 현 주

가톨릭대학교 예방의학과

권 정 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부부의 원가족 특성(경계·적응)과 배우자 가족 갈등(옹서갈등·고부갈등)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S지역 부부 274쌍(남편: 274명, 부인: 274명)이다. 본 연구는 Minuchin(1974)의 이론을 토대로 원가족 경계가 밀착·분리된 경우,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배우자 원가족이 밀착·분리된 경계를 가진 경우, 배우자의 부모가 자녀가족에 계속 관여하게 되어 고부갈등·옹서갈등과 같은 배우자 가족 갈등을 유발하고, 이러한 배우자 가족 갈등은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낮춘다고 가정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남편모형과 부인모형을 설계하였다. 다음으로 남편모형과 부인모형의 적합도 결과를 근거로, 부부의 통합모형을 설계하고, 그 경로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남편의 원가족 특성은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지만, 부인의 원가족 특성은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남편의 원가족 특성은 부인의 고부갈등을 매개로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부인의 원가족 특성은 남편의 옹서갈등을 매개로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를 통해, 부부의 원가족이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부부의 결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배우자 가족갈등인 고부갈등과 함께 최근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사위-장모간의 갈등인 옹서갈등을 이해하는 틀을 마련하였다.

주요어 : 원가족, 배우자 가족 갈등, 고부갈등, 옹서갈등, 결혼만족도

<sup>†</sup> 교신저자 : 유연지, SK 미래 경영연구원,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목리 63-1  
Tel : 031-924-1450, E-mail : yeonji@sktelecom.com

부부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두 남녀가 결혼을 통해 새로운 공간에서 생활을 함께 공유하게 된다. 부부는 결혼생활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 재확립, 내면화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원가족 경험은 부부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Berger & Keller, 1980). 부부의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부부의 사회문화적 특성, 상황적 특성, 원가족 특성 중에서 부부의 원가족 특성이 결혼생활을 예측하는 가장 높은 요인이라고 한다(김영희, 1999; Benson, Arditto, Reguero & Smith, 1993; Kelly & Conly, 1987).

원가족 특성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Holman, Larson과 Harmer(1994)은 부모-자녀 관계, 부모의 결혼의 질, 가족 환경의 질과 같은 원가족의 복잡한 가정환경이 자녀의 결혼생활의 안정과 행복을 예측하며, 특히 남편 원가족의 가정환경은 남편의 결혼만족, 남편의 결혼 안정성, 그리고 부인의 결혼만족과 모두 정적인 상관을 갖는다고 하였다. Sabatelli과 Bartle-Haring(2003)의 연구에 따르면, 남편과 부인의 원가족 경험은 부부의 결혼생활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부인의 원가족 경험이 남편의 원가족 경험보다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원가족 특성이 자신의 결혼만족도 뿐 아니라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부부들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나라 부부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원가족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서구 사회보다 집단주

의적인 성향이 강하여 결혼한 부부라 하더라도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확대가족의 테두리 안에 위치하기 때문에, 원가족이 핵가족 부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서구보다 더욱 강하다(정은희, 2004). 더욱이 우리나라는 핵가족의 형태를 갖고 있을지라도, 실제로 변형된 확대가족 문화 속에서 확대가족들과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나라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가족 체계적 관점에서, 원가족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설명하는 가족체계 이론에 따르면, 가족은 하위체계들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하위체계들은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하고 영향을 준다고 한다(Bowen, 1985; Constantic, 1984; Eisler & Szmukler, 1988; Goldenberg & Goldenberg, 2004; Hill, 1988; Olson, 1982). 가족체계에 따르면, 결혼을 통해 맺어진 부부관계는 원가족의 하위체계로서 원가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새로운 가족 내에서 과거 원가족에서의 경험패턴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족체계 이론 중에서 Minuchin의 구조적 가족치료 이론은 가족구조와 구성원의 관계를 중요시하며, 하위체계의 개념이 명확하고 단순하며 포괄적이고 실용적이기 때문에 가장 널리 사용되어지는 개념적인 모델중의 하나이다(송성자, 1996; Minuchin, Rosman, & Baker, 1978). Minuchin(1974)의 이론에 따르면, 가족에는 부부간, 부모-자녀간, 형제간 하위체계가 존재하고, 하위체계간 경계가 너무 불분명하여 서로 깊이 밀착되거나, 반대로 너무 경직될 경우에는 가족 내의 역기능적인 교류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하위 체계간 분명한 경계를 가진 가족의 가족성원들은 서로 지지적이고 서로 돌보고 상호간의 자율성을 존중

하므로, 가족의 문제나 변화에 융통성 있게 적응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분명한 부모-자녀 하위체계간 경계를 가진 원가족에서 성장한 부부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친밀감과 자율성을 경험할 수 있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Becvar & Becvar, 1988). 그러나 원가족과 밀착·분리된 경계를 가진 경우에는 친밀감과 자율성을 경험할 수 없고, 궁극적으로 가족문제를 나타내고 부부관계에서 적응적인 행동을 하지 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부가 경험하는 대표적인 가족 내 갈등은 고부갈등이다. Minuchin(1974)의 구조적 가족치료 관점에서, 고부간의 갈등은 각 하위체계간의 분명하지 못한 경계의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부모-자녀 관계에서 모자관계가 매우 얽힌 관계로서 혼동된 관계를 가지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부자관계는 유리된 관계가 될 수 있다. 이처럼 가족성원들이 밀착·분리된 가족 경계를 가질 경우 아들은 원가족으로부터 자율성을 경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대처능력의 결핍을 보이게 된다. 아들은 원가족 내에서 개별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어머니와의 연합에서 공생적 관계를 맺으며 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그런 아들이 성장하여 결혼을 하게 되면, 며느리는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온 어머니-아들간의 공생적 관계에 변화를 촉발하는 존재가 된다. 이럴 때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아들을 빼앗겼다는 상실감 등의 복합적인 감정으로 시어머니-며느리 간에 심리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남편의 원가족의 특성은 고부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궁극적으로 고부갈등과 같은 배우자 가족 갈등은 아들의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현은민, 1990). 고부갈등은 대표적인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으로, 부부의 갈등 및 불화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되고 있다(고정자, 1987; 정옥분, 정순화, 홍계옥, 2005). 고부갈등은 이혼상당 사유의 28.1%를 차지할 만큼 부부관계의 중요한 갈등 사유이며, 이혼 사유의 2번째에 해당할 정도로 부부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한국 가정법률 상담소, 2002).

한편 전통적인 한국사회가 고부갈등으로 시름하였다면, 최근에는 사위와 장모 간에 경험하는 응서(翁壻)갈등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위는 백년손님이라 불리며, 장모에게는 따듯한 애정과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친정에게 양육과 경제적 도움이 증가하게 되고 친정과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장모는 부부의 임신과 출산시기 결정, 집 장만이나 이사, 손자들의 교육, 심지어 성생활과 이혼결정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김진명, 1999; 오명철, 2003; 오태진, 2004; 조두진, 2004). 이러한 처가와 교류의 증가는 시집보다 친정의 영향력이나 유대감을 증가시켰으나, 그의 부작용으로 부부관계의 문제에 장모가 지나치게 개입함으로써 새로운 응서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다(박정운, 1993; 한국여성개발원, 2004). 응서갈등은 최근의 사회 문화의 변화로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한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응서갈등은 외국에서는 흔한 배우자 갈등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남편의 원가족과의 분화수준이 부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외국의 연구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아내의 원가족과의 분화수준이 부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박성연, 1994; Gilligan & Carol, 1982; Lim & Jennings, 1996). 고부갈등과 마찬가지로

옹서갈등도 장모와 딸의 관계가 지나치게 밀착·옹집된 경우에 부모-자녀 하위체계간의 밀착된 경계를 이루면서, 가족의 경계선을 불명확해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정옥분 등, 2005). 옹서갈등이 사위가 부인의 원가족(어머니)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갈등인 만큼, 고부갈등과 함께 가족 체계론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옹서갈등은 미래의 중요한 배우자 가족 갈등이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옹서갈등을 다룬 경험적인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부부의 원가족 특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부부의 원가족 경계가 불명확하고 적응력이 낮은 경우 고부갈등 및 옹서갈등과 같은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을 경험할 수 있어, 고부·옹서갈등이 결혼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연구방법

#### 연구 대상

서울지역 두 곳의 통반장에서 연구목적을 설명한 뒤, 연구에 동의한 성인 부부 274쌍이 연구대상으로 참여하였다. 설문지는 400쌍에게 배부되었으나, 남편과 부인이 함께 설문에 응답하고 수거된 총 274쌍의 자료만 사용되었다. 이들 부부의 평균 결혼기간은 16.05 ( $SD=10.28$ )년이었고, 남편의 평균 연령은 43.83 ( $SD=9.88$ )세, 부인은 41.16( $SD=9.59$ )세 이었다. 남편의 학력은 대졸 이상이 137명(89.6%), 여

성은 194명(70.5%)으로 대부분 고학력이었다. 남편의 경우 회사원이 78명(28.5%)으로 가장 많았고, 부인의 경우 전업주부가 144명(52.6%)으로 가장 많았다.

#### 평가 도구

##### 가족체계 진단 척도(The Family System Diagnosis Scale)

가족체계 진단 척도는 이미옥(2000)이 가족 체계에 관한 Minuchin의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족체계 진단 척도는 가족구성원의 상호작용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의 역동성을 평가하는 2개의 요인(밀착·분리, 융통성·경직성)과 하위체계간의 상호작용을 평정(세대간 협력, 부부갈등 해결, 어머니-자녀 관계, 아버지-자녀 관계)하는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가족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2개의 가족역동성 요인(밀착·분리, 융통성·경직성)만을 사용하였다. 밀착·분리 요인은 가족구성원의 가족 경계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가족구성원들이 얼마나 서로 분화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융통성·경직성 요인은 가족 적응성을 평가하는 높은 경우에는 가족에게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얼마나 적응적으로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으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 ‘밀착·분리’ 요인의 내적 일치도는 남편 Cronbach's  $\alpha=.91$ , 부인 Cronbach's  $\alpha=.87$ 이었고, ‘융통성·경직성’ 요인은 남편 Cronbach's  $\alpha=.88$ , 부인 Cronbach's  $\alpha=.75$ 로 신뢰할 수 있다.

### 고부간의 갈등 척도

며느리가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심리적 갈등을 측정하기 위해서, 김태연(1994)이 개발한 고부갈등 척도 중 정서적 갈등 32문항을 사용하였다. 고부갈등 척도는 며느리가 배우자의 어머니인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갈등을 측정하는 자기 보고식 척도로, 4요인(요인 1. 정서적 갈등. 요인 2. 시모의 이기적 태도에서 오는 갈등. 요인 3. 살림살이로 인한 갈등. 요인 4. 손자녀로 인한 갈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1점(전혀 느끼지 않는다)에서 4점(비교적 느끼는 편이다)으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alpha=.96$ 이었다.

### 응서간의 갈등 척도

사위가 장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심리적 갈등을 측정하기 위해서, 김태연(1994)이 개발한 고부간의 갈등 척도 중 정서적 갈등 32문항을 사용하였다. 사위와 장모간의 갈등을 측정하기 위해서 김태연의 고부간의 갈등 척도를 사용한 이유는, 이 척도가 피험자의 성별에 영향을 적게 받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험자가 배우자의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정서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응서간의 갈등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에서 고부간의 정서적 갈등과 비교할 수 있는 척도여야 한다는 점에서 선택되었다. 이 척도는 1점(전혀 느끼지 않는다)에서 4점(비교적 느끼는 편이다)의 4점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장모와의 갈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alpha=.96$ 이었다.

### 한국판 전반적 불만족 척도(Korean-General Dissatisfaction Scale)

결혼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K-MSI)의 하위 척도인 전반적 불만족 척도를 사용하였다. K-MSI는 권정혜와 채규만(1999)이 Syner(1981)가 개발한 결혼만족도 검사(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Revised)를 한국 실정에 맞게 표준화 한 것이다. 전반적 불만족 척도는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아니오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일치도는 남편의 경우 Cronbach's  $\alpha=.93$ , 부인의 경우 Cronbach's  $\alpha=.94$ 였다.

### 연구절차

서울지역 두 곳의 통반장에서 연구목적을 설명한 뒤, 연구에 동의한 성인 부부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남편용', '부인용' 2부를 함께 봉투에 넣어 설문을 배부하였으며, 반드시 법적인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한 쌍이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또한 부부가 솔직하게 작성하기 위해, 부부가 각각 설문에 응답한 후, 동봉한 봉투에 넣어 밀봉한 뒤 회수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 분석방법

SPSS 12 for window를 이용하여, 먼저 남편과 부인의 인구학적 특성, 주요 변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각각 빈도분석과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주요변인들이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원가족 특성과 고부 · 응

서갈등이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를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AMOS 4.0을 이용하여, 남편과 부인의 원가족 특성 및 배우자 가족 갈등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구조모형을 설계하고, 남편모형과 부인모형을 통합하여 부부의 통합모형을 설계하여 검증하였다.

## 결 과

### 부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부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부부 가계의 월수입은 400만 원 이상이 112쌍(40.9%)으로 가장 많았다. 경제적 의존도는 233쌍(85.0%)의 부부가 친가·처가 모두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며, 31쌍(11.3%)이 한쪽의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고, 10쌍(3.6%)만이 양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는 부부들 중에서 친가의 도움을 받는 부부는 21(7.75%)쌍, 처가의 도움을 받는 부부는 10쌍(3.6%)이었다. 결혼기간은 10년 이하가 98쌍(35.8%)으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형태는 연애혼이 140쌍(51.1%)으로 가장 많았다. 남편의 부모와의 접촉빈도를 살펴보면,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32쌍(11.7%)을 제외한 242쌍(88.3%) 중에서, 1년에 4~12회가 69쌍(25.2%)으로 가장 많았다. 1달에 1회

표 1. 부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월수입	100만원 미만	6(2.2)	결혼기간	10년 이하	98(35.8)
	100-199만원	42(15.3)		11년~20년	77(28.1)
	200-299만원	56(20.4)		21년-30년	76(27.7)
	300-399만원	58(21.2)		31년-40년	22(8.4)
	400만 원 이상	112(40.9)		41년 이상	1(0.4)
경제적 의존	도움 안받음	233(85.0)	결혼형태	중매혼	81(29.6)
	친가 도움	21(7.7)		연애혼	140(51.1)
	처가 도움	10(3.6)		절충혼	53(19.3)
	양가 도움	10(3.6)			
남편의 부모 접촉빈도	없음(사망)	32(11.7)	아내의 부모 접촉빈도	없음(사망)	30(10.9)
	1년에 1~3회	12(4.4)		1년에 1~3회	15(5.5)
	1년에 4~12회	69(25.2)		1년에 4~12회	84(30.7)
	1달에 1회	57(20.8)		1달에 1회	65(23.7)
	1달에 2~3회	31(11.3)		1달에 2~3회	26(9.5)
	1주일에 1회	20(7.3)		1주일에 1회	13(4.7)
	1주일에 2~3회	15(5.5)		1주일에 2~3회	14(5.1)
	매일	26(9.5)		매일	16(5.8)
	기타	12(4.4)		기타	11(4.0)

방문하는 부부는 57쌍(20.8%), 1달에 2~3회 방문하는 부부는 31쌍(11.3%)이었다. 아내의 부모와의 접촉빈도를 살펴보면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30쌍(10.9%)을 제외한 244쌍(88.7%) 중에서, 1년에 4~12회가 84쌍(30.7%)으로 가장 많았다. 1달에 1회 방문하는 부부는 65쌍(23.7%), 1달에 2~3회 방문하는 부부는 26쌍(9.5%)이었다.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

다음은 각 변인들에 대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표 2). 그 결과, 모든 변인들이 남편과 부인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원가족 경계 및 원가족 적응을 하위구성요인으로 가지고 있는 원가족 특성( $r(274)=-3.32, p<.01$ )은 남편집단이 부인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또한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r(274)=-9.58, p<.001$ )을 나타내는 응서갈등과 고부갈등에서, 남편집단과 부인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한편 결혼만족도( $r(274)=5.73, p<.001$ )에서는 남편집단이 부인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집단이 부인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원가족 경계가 불명확하고 적응성이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 남편

이 장모와 경험하는 갈등 수준은 부인이 시모와 경험하는 갈등 수준에 비해서 더 낮으며, 남편이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정도는 부인이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정도에 비해서 더 높은 것을 나타낸다.

부부의 나이, 결혼기간 및 주요 변인들간 상관

결혼기간 및 주요 변인들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그 결과 남편의 경우에 결혼기간과 원가족 특성( $r(274)=-.12, p<.05$ ), 응서갈등( $r(274)=.13, p<.05$ )간의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고, 부인의 경우에도 결혼기간과 원가족 특성( $r(274)=-.14, p<.05$ ), 고부갈등( $r(274)=.21, p<.01$ )간의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남편( $r(274)=-.08, ms$ )과 부인( $r(274)=-.11, ms$ ) 모두 결혼기간과 결혼만족도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자신의 나이( $r(274)=-.12, p<.05$ ), 원가족 특성( $r(274)=.27, p<.001$ ), 응서갈등( $r(274)=-.24, p<.001$ )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자신의 나이( $r(274)=-.14, p<.05$ ), 원가족 특성( $r(274)=.14, p<.05$ ), 고부갈등( $r(274)=-.35, p<.001$ )과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부인의 원가족 특

표 2. 성별에 따른 주요변인들의 평균 및 차이

	원가족 특성 평균(표준편차)	배우자 가족 갈등 평균(표준편차)	결혼만족도 평균(표준편차)
남편	59.01 (8.63)	응서갈등: 49.69 (13.35)	18.58 (4.90)
부인	61.12 (8.50)	고부갈등: 60.35 (15.55)	17.03 (5.93)
<i>t</i>	-3.32**	-9.58***	5.73***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3. 나이, 결혼기간, 원가족 특성,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결혼만족도의 상관

	남편				부인			
	1	2	3	4	1	2	3	4
결혼기간	.94***	-.12*	.13*	-.08	.95***	-.14*	.21**	-.11
남편								
1. 나이	1.00							
2. 원가족 특성	-.14*	1.00						
3. 웅서갈등	.13*	-.23***	1.00					
4. 결혼만족도	-.12*	.27***	-.24***	1.00				
부인								
1. 나이	.97***	-.14*	.13*	-.10	1.00			
2. 원가족 특성	-.19**	.26***	-.21**	.16*	-.16*	1.00		
3. 고부갈등	.24***	-.20**	.26***	-.28***	.24***	-.15*	1.00	
4. 결혼만족도	-.12*	.28***	-.18**	.68***	-.14*	.14*	-.35***	1.00

\*  $p < .05$ . \*\*  $p < .01$ . \*\*\*  $p < .001$ .

성( $r(274)=.16$ ,  $p<.01$ ), 부인의 고부갈등( $r(274)=-.28$ ,  $p<.001$ ), 부인의 결혼만족도( $r(274)=.68$ ,  $p<.001$ )와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 그러나 부인의 나이와 남편의 결혼만족도 간에는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r(274)=-.10$ ,  $ns$ ).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남편의 나이( $r(274)=-.12$ ,  $p<.05$ ), 남편의 원가족 특성( $r(274)=.28$ ,  $p<.001$ ), 남편의 웅서갈등( $r(274)=-.18$ ,  $p<.01$ ), 남편의 결혼만족도( $r(274)=.68$ ,  $p<.001$ )와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에서 나이와 결혼기간은 상당히 높은 상관을 보인다. 그러나 부인과 남편 모두 자신의 나이와 결혼만족도간 부적 상관을 보이지만, 결혼기간은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이것은 부부의 나이와 결혼기간이 모두 결혼만족도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정창수, 정기선, 차종

천, 1997), 결혼만족도를 설명하는 독립변인으로 고려하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노익상, 2002). 최근 결혼기간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최근 이 둘간의 상관에 대한 결과가 U자형(Rollins & Feldman, 1970)과 신흠초기에 높다가 점차 만족도가 감소하는 L자형(정기선, 1997; 정현숙, 1996, Bradbury, Frank & Steven, 2000, Vailant & Vailant, 1993)인 유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결혼기간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결혼기간에 따른 만족도의 변화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남편의 원가족 특성, 부인의 원가족 특성, 웅서갈등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표 4.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투입단계	예언변인	Beta	t	R <sup>2</sup>	R <sup>2</sup> 변화량	F 변화량
1단계	남편의 원가족 특성	.14	-4.14***	.062	.062	17.13***
2단계	남편의 원가족 특성	.12	-3.42**	.093	.031	13.29***
	남편의 응서갈등	-.07	-2.99**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5.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투입단계	예언변인	Beta	t	R <sup>2</sup>	R <sup>2</sup> 변화량	F 변화량
1단계	부인의 고부갈등	-.14	-6.20***	.131	.131	38.38***
2단계	부인의 고부갈등	-.12	-5.44***	.175	.044	26.84***
	남편의 원가족 특성	.15	3.66**			

\*  $p < .05$ . \*\*  $p < .01$ . \*\*\*  $p < .001$ .

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5). 그 결과, 남편의 결혼만족도를 설명해주는 변인으로 남편의 원가족 특성과 남편의 응서갈등이 선택되었다. 분석결과 부인의 원가족 특성은 제외되었다. 분석결과 1 단계에서 남편의 원가족 특성은 결혼만족도를 6.2%를 설명함으로써 유의미한 효과( $F(1,273) = 17.13, p < .001$ )를 나타냈고, 2단계에서 남편의 응서갈등은 결혼만족도를 3.1% 설명함으로써 유의미한 효과( $F(2,272) = 13.29, p < .001$ )를 나타냈다. 즉, 남편의 가족특성, 남편의 응서갈등이 남편의 결혼만족도를 설명해주는 변량은 총 9.3%였다. 다음으로, 부인의 결혼만족도를 설명해주는 변인으로 부인의 고부갈등과 남편의 원가족 특성이 선택되었다. 분석결과 부인의 원가족 특성은 제외되었다. 분석결과 1단계에서 부인의 고부갈등은 결혼만족도를 13.1%를 설명함으로써 유의미한 효과( $F(1,273) = 38.38, p < .001$ )를 나타냈고, 2단계에서 남편

의 원가족 특성은 결혼만족도를 4.4% 설명함으로써 유의미한 효과( $F(2,272) = 26.84, p < .001$ )를 나타냈다. 즉, 남편의 원가족 특성, 부인의 고부갈등이 부인의 결혼만족도를 설명해주는 변량은 총 17.5%였다.

#### 남편모형 및 부인모형 검증

자신의 원가족 특성이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배우자의 가족 특성이 응서 · 고부갈등을 매개로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다(그림 1, 그림 2). 남편모형 I에서는 남편의 원가족 특성과 부인의 원가족 특성이 직접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설적인 직접경로들을 설계하였다. 남편모형 II에서는 남편의 원가족 특성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설적인 직접경로와 함께, 부인의 원가족 특성이 남편의 응서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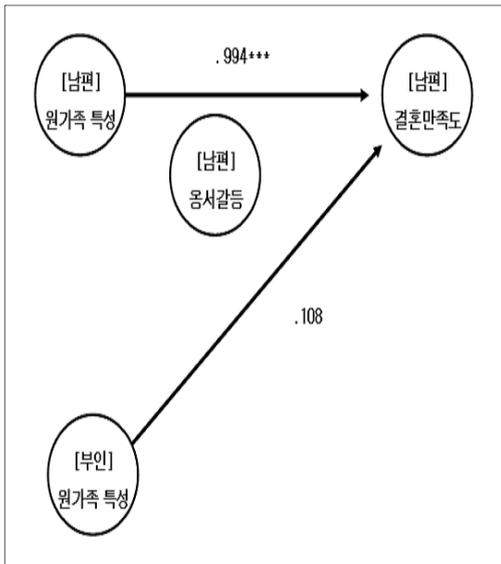


그림 1. 남편모형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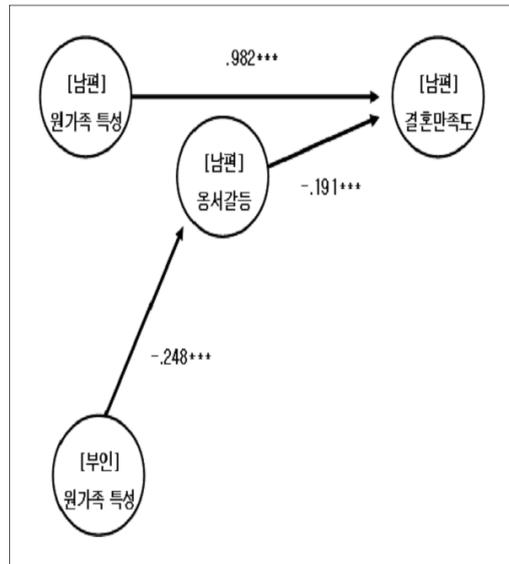


그림 2. 남편모형 II

을 매개로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설적인 매개경로를 설계하였다. 즉 남편 모형 I과 남편모형 II의 차이는 부인의 원가족의 특성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남편이 경험하는 용서갈등을 매개로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효과와 매개효과를 비교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모델의 적합도는 NNFI(Non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홍세희, 2000). 그

결과, 남편모형 I은 CFI(.991), NNFI(.985), 남편모형 II는 CFI(.992), NNFI(.987)으로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표 6). 그러나 RMSEA결과 남편모형 I에서는 ‘나쁜 수준’의 적합도가 나온 반면, 남편모형 II에서는 ‘보통 수준’의 적합도가 나왔다. 또한 남편모형 I과 남편모형 II의  $X^2/df$  변화량을 비교한 결과, 자유도가 34에서 33으로 1만큼 줄어들면서  $X^2$ 의 변화량은 17.093만큼 줄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남편모형 II를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즉, 부인의 원가족 특성은 용서갈등을 매개로 남

표 6. 가설적 남편모형의 적합도

모형	$X^2$	$df$	$X^2/df$	CFI	NNFI	RMSEA
남편모형 I	125.911	34	3.703	.991	.985	.100
남편모형 II	108.818	33	3.298	.992	.987	.092
			<.20	>.90	>.90	

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편모형 검증

부인모형 검증

부인모형은 그림 3과 그림 4에 제시하였다. 부인모형에서는 부인의 원가족 특성과 남편의 원가족 특성이 직접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설적인 직접경로들을 설계하였다. 부인모형 II에서는 부인의 원가족 특성이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설적인 직접경로와 함께, 남편의 원가족 특성이

부인의 고부갈등을 매개로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설적인 매개경로를 설계하였다. 즉 부인모형 I과 부인모형 II의 차이는 남편의 원가족의 특성이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부인이 경험하는 고부갈등을 매개로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효과와 매개효과를 비교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부인모형 I은 CFI(.992), NNFI(.986), 부인모형 II는 CFI(.998), NNFI(.996)으로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표 7). 그러나 RMSEA결과 부인모형 I에서는 ‘보통 수준’의 적합도가 나온 반면, 부인모형 II에서는 ‘괜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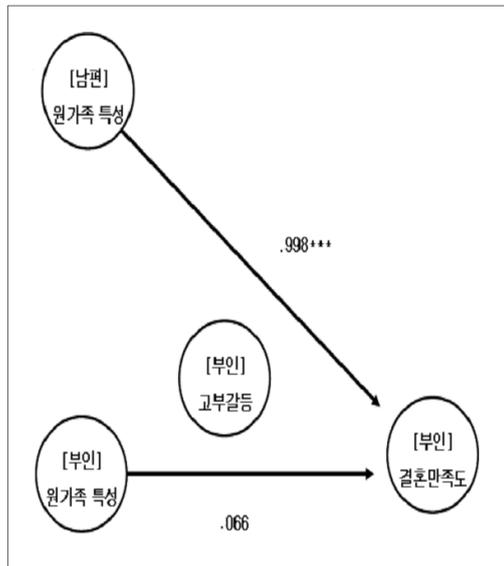


그림 3. 부인모형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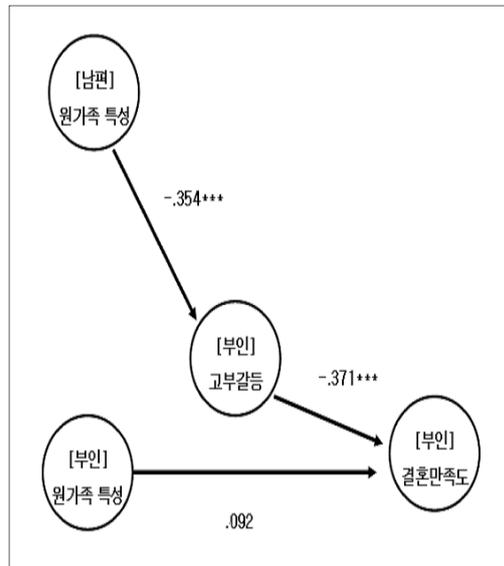


그림 4. 부인모형 II

표 7. 가설적 부인모형의 적합도

모형	X <sup>2</sup>	df	X <sup>2</sup> /df	CFI	NNFI	RMSEA
부인모형 I	116.695	34	3.432	.992	.986	.094
부인모형 II	56.551	33	1.787	.998	.996	.053
			<.20	>.90	>.90	

의 적합도가 나왔다. 또한 부인모형 I 과 부인 모형 II의  $X^2/df$  변화량을 비교한 결과, 자유도가 34에서 33으로 1만큼 줄어들면서  $X^2$ 의 변화량은 60.141만큼 줄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인모형 II를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즉, 남편의 원가족 특성은 고부갈등을 매개로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부의 통합모형 검증

다음으로 최종 남편모형과 최종 부인모형을

토대로, 부부의 통합적인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5). 그 결과, 부부의 통합모형은 CFI (.993), NNFI(.990)으로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표 8). RMSEA결과 연구모형에서 ‘괜찮은 수준’의 적합도가 나왔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설계한 부부에 대한 가설적인 모형은 비교적 수집된 자료와 합치되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통합 모형은 아내의 원가족 특성이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한 모든 경로의 회귀계수가 유의미했다. 먼저, 남편의 원가족 특성은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효과( $\beta=.177, p<.05$ )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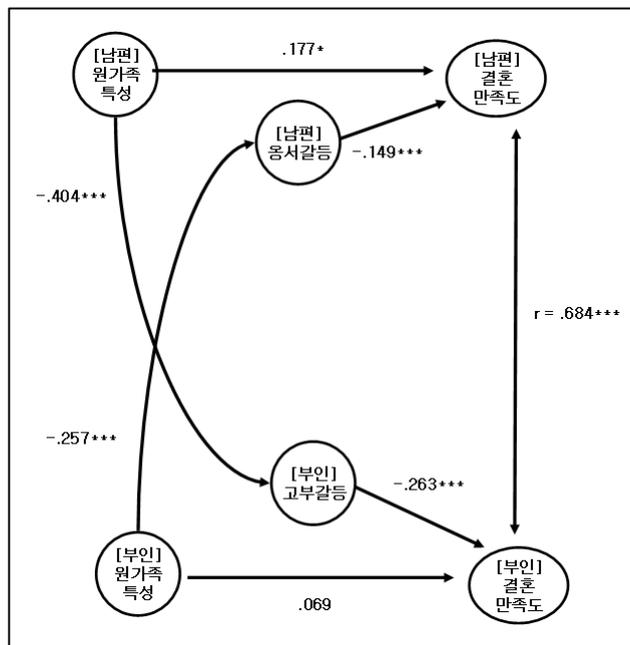


그림 5. 부부의 통합모형

표 8. 부부 통합모형의 적합도

모형	$X^2$	df	$X^2/df$	CFI	NNFI	RMSEA
통합모형	207.510	97	2.139	.993	.990	.065
			<.20	>.90	>.90	

나타냈다. 그러나 부인의 원가족 특성은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효과( $\beta=.069$ ,  $m$ )를 나타내지 못했다. 배우자 가족특성이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남편의 가족 특성이 부인의 고부갈등에 미치는 효과( $\beta=-.404$ ,  $p<.001$ )와 부인의 원가족 특성이 남편의 응서갈등에 미치는 효과는( $\beta=-.257$ ,  $p<.001$ ) 유의미했다. 그리고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남편의 응서갈등이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beta=-.149$ ,  $p<.001$ )와 부인의 고부갈등이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beta=-.263$ ,  $p<.001$ )는 유의미했다. 즉, 남편의 결혼만족도에는 자신의 원가족 특성과 응서갈등을 매개로 부인의 원가족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된 반면, 부인의 결혼만족도에는 원가족 특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고부갈등 매개로 남편의 원가족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논 의

본 연구는 부부의 원가족 특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원가족 특성이 배우자 가족 갈등(고부 · 응서갈등)을 매개로 부인 ·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원가족 특성, 배우자 가족 갈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합적 모형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부부의 원가족 특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형을 검증한 결과, 남편의 원가족 특성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부인의 원가족 특성은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들은 결혼생활에서 원가족 특성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만, 부인들은 결혼생활에서 자신의 원가족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결혼을 하면, 남성은 ‘아내를 데려온다’라고 말하고, 여성은 ‘시집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유교적 전통에 따른 가족주의 문화와 관련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유교 문화의 가족에서는 효를 숭상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가계의 혈통을 남성이 중심이 되어 이어왔다. 따라서 남성은 결혼을 하면 가풍을 잇는 책임자로 대변되기 때문에 원가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이것이 결혼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비해 여성은 결혼을 통해 자신의 원가족을 떠나 남편의 문화를 이어야하는 의무를 부여받게 됨으로서 자신의 원가족 보다는 남편과의 관계가 결혼 만족도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부부관계를 형성한 후에도, 남성들은 원가족의 영향력 아래 있지만 부인들은 원가족의 질과 상관없이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원가족 관련변인은 부부관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남편의 원가족 관련변인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이종원, 2002; 전춘애, 1994). 더불어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환경적응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최규련, 1994).

다음으로, 배우자의 원가족 특성이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고부갈등 · 응서갈등)을 매개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남편모형에서 부인의 원가족 특성은 남편의

옹서갈등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 남편의 옹서갈등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인이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가족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부적응적이면 장모와 사위간의 갈등(옹서갈등)이 초래되어 결국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인이 결혼한 뒤에도 자신의 원가족과 지나치게 밀착하게 되면 남편과의 관계인 부부체계를 공고하게 다지지 못하게 되므로, 제 삼자인 장모가 부부관계에 쉽게 침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부인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원가족을 삼각화 관계로 끌어들이므로써,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면은 최근 맞벌이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육아 및 살림을 친정 어머니가 대신 맡게 되거나 자녀와 가까운 곳에 살면서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친정 어머니에 대해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이 많은 것 같다. 이처럼 현대 사회는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시댁과의 접촉보다는 친정과의 접촉이 많아져 고부갈등보다는 옹서갈등이 더욱 부각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이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경계가 명료하고 적응성이 높으면 남편이 옹서갈등을 덜 경험하고, 남편이 옹서갈등을 덜 경험하면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모형의 검증결과, 남편의 원가족 특성은 부인의 고부갈등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부인의 고부갈등은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인도 남편이 자신의 원가족과 경계가 모호하고 부적응적이면 남편이 자신과의 관계에서 시어머니를 삼각화

로 끌어들이고 고부갈등이 심화되고 결국 부인의 결혼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친인척간의 관계의 질이 부부의 결혼적응이나 부부 갈등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박성혜(1995)와 일치한다. 따라서 부부는 자신의 원가족과의 관계를 부부 관계에 끌어들이지 말고, 자신들의 부부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지만 외부에서 부부의 경계를 넘어오지 않아 고부 및 옹서갈등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부부가 결혼생활을 즐겁고 만족스럽게 유지하려면 무엇보다도 자신의 원가족으로부터 분리하여 부부만의 새로운 부부 나아가 가족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남편모형과 부인모형의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부부의 통합모형을 설계하고, 원가족 특성과 배우자 가족 갈등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경로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부부의 통합모형은 수집된 자료들을 설명하는 적합한 모형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부부의 통합모형에서 가정한 모든 경로들 중에서, 부부의 원가족 특성이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한 모든 경로의 회귀계수가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의 원가족 특성은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부인의 경우에는 원가족 특성이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앞의 결과와 동일한 것이다. 그리고 남편과 부인 모두 배우자 가족의 특성은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고부·옹서갈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은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부부의 통합모형 검증결과,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연구하는데 부부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므로 남편과 부인의 자

료를 함께 수집하여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부부의 설문지가 작성된 시간, 장소, 환경 및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제한점이 있다. 부부가 설문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문항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고, 부부가 설문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의하거나 서로의 것을 참조하는 등, 설문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을 유념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둘째, 20대~6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대부분 고학력과 경제적 수준이 높은 부부들을 중심으로 자료가 수집되어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과거 부부의 나이, 결혼기간, 학력, 경제적 수준은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밀접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정문자, 2000), 향후에는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이 다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족의 다양한 특성들 중 Minuchin(1974)의 구조적 가족치료 이론에 근거한 가족경계 및 가족적응성만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향후에는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고부 · 응서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족의 각 하위체계간의(예. 어머니-아들, 어머니-딸) 특성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넷째, 응서갈등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라 응서갈등을 측정하는데 고부갈등 척도를 수정 · 보완하여 사용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가 응서갈등의 다양한 측면 중에서 정서적 갈등만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응서갈등의 원인과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장모와 사위간의 갈등인 ‘응서갈등’을 경험적으로 다룬 최초의 연구이다. 새롭게 가족문제 및 부부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장모-사위간의 갈등을 정의하고, 응서갈등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본 첫 연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를 통해 응서갈등으로 고민하는 많은 부부들과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고, 나아가 응서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둘째 부부관계를 단순히 개인의 시각이 아닌 부부의 상호작용의 관점 나아가 가족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자신의 원가족 특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배우자의 원가족 특성이 배우자의 가족 갈등(고부갈등과 응서갈등)을 통해 부부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셋째, 기존의 연구들은 부부 한쪽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본 연구는 남편과 부인, 부부의 자료를 함께 수집하여 ‘통합적인 모형’을 검증하였다는데 의의를 갖는다. 부부는 결혼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 재확립, 내면화하면서 상호작용하는 관계이다. 따라서 부부관계를 연구할 때에는, 부부의 개별적인 특성과 부부의 상호적인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부부의 상호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한 것에 의의가 있다. 더불어 부부관계를 이해하고 상담하는데 있어서, 현재 나타난 부부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원가족 특성 나아가 배우자의 원가족과의 역동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 참고문헌

- 고정자 (1987). Minuchin 이론 체계내에서 한 국가정의 고부갈등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정혜, 채규만 (1999).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 II.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 139-150.
- 김영희 (1999). 가족건강 개념개발: 혼종모형을 이용하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진명 (1999년 10월 13일). 결혼을 혼드는 장모-사위 갈등. 주간내일신문 302호.
- 김태연 (1994). 고부갈등과 이에 대한 대처방식이 며느리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노익상 (2002). 한국도시 기혼남녀의 배우자 만족도 연구: 개인적 환경적, 상호작용 요인.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성연 (1994).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자녀관계와 또래지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성혜 (1994). 며느리가 지각한 고부갈등과 며느리의 결혼만족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성자 (1996). 가족과 가족치료. 서울: 법문사.
- 오명철 (2003년 11월 28일). 장모와 사위사이. 동아일보.
- 오태진 (2004년 1월 16일). 장모의 시대. 조선일보.
- 이미옥 (2004). 가족체계 진단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3), 179-193.
- 이종원 (2002). 부부갈등과 관련된 원가족 변인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춘애 (1994). 부부의 자아분화 수준과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각이 결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기선 (1997). 산업화 한국가족의 실태와 전망: 생애주기를 통해서 본 한국 가족. 서울: 집문당.
- 정옥분, 정순화, 홍계옥 (2005). 결혼과 가족의 이해. 서울: 시그마프레스.
- 정은희 (2004). 원가족 분화, 자아존중감과 부부갈등대처방식에 따른 결혼안정성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창수, 정기선, 차종천 (1997). 산업화 한국가족의 실태와 전망: 결혼의 질. 서울: 집문당.
- 정현숙 (1996). 도시 부부의 결혼만족도 변화 패턴.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2.
- 조두진 (2004년 3월 3일). 新부부-친정시대. 매일일보.
- 최규련 (1995).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과 부부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 99-113.
-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 (2002). 2001년 상담통계 분석 개요. 가정상담, 3, 5-7.
- 한국 여성개발원 (2004). 지역 여성 통계.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현은민 (1990). 구조적인 이론 측면에서 본 한국 고부간의 갈등. 안동대학 논문집, 12, 169-180.
- 하상희 (2007). 원가족 건강성과 자기분화의 세대간 전이.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준거. 한국심리학회:

- 임상, 19, 161-177.
- Bartle-Haring, S. & Sabatelli, R. M., (1998). An intergenerational examination of patterns of individual and family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903-911.
- Becvar, D. & Becavar, R. (1988). *Family Therapy: A Systemic Integration*. Boston: Allyn and Bacon, Inc.
- Benson, M. J., Arditti, J. Reguero de Atilas, J. T., & Smith, S. (1992). Intergeneration trasmission: Attribution in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intimate others. *Journal of Family Issues*, 13, 450-464.
- Berger, P. L., & Keller, H.(1980). *Marriage and construction of reality*. In J. M. Henslined(Eds.) *Marriage and Family in a changing society*. New York: The Free Press.
- Bowen, M. (1985).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son Aronson.
- Bradbury, Thomas. N., Frank D. Fincham, & Steven R. H. Beach. (2000). Research on the Nature and Determinants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4, 964-980
- Constantic, L. L. (1984). Dysfunction and Failure in open Family Systems: In Clinic at Issue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0, 1-16.
- Eisler, I., Dare, C., & Szmukler, G. I. (1988). What's happened to family Interaction research? An Historical Account and A Family Systems Viewpoint.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4, 45-65.
- Gilligan, C., & Carol, A. (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Goldenberg, I., & Goldenberg, H. (2004). *Family Therapy: An Overview*. 6th ed. Australia: Thomson Wadsworth.
- Hill, M. S. (1988). Marital stability and spouse's shared time. *Journal of Family Issue*, 9, 427-451.
- Holman, T. B., Larson, J. H., & Harmer, S. L. (1994). The development and predictive validity of a new premarital assessment instrument: The Preparation for Marriage Questionnaire. *Family Relations*, 43, 46-52.
- Kantor, D., Lehr, M., & William, A. (1975). *Inside the Family*. San Francisco: Jossey-Bass.
- Kelly, E. L. & Conley, J. J. (1987). Personality and compatibility: A prospective analysis of marital stabi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27-40.
- Lim M-G., & Jennings, G. H. (1996). Marital satisfaction of healthy differentiated and undifferentiated couples. *Family Journal*, 4, 308-315.
- Minuchin, S. (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Minuchin, S., Rosman, B., & Baker, L. (1978). *Psychosomatic Families: Anorexia nervosa in contex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Napier, A. Y. (1988). *The fragile bond: In search of an equal, intimate, and enduring marriage*. New York: Harper & Row.
- Olson, D. H. (1982). *Family Inventories*. St. Paul: Minnesota University Press.

- Rollins, B. C., & Feldman (1970),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 20-28.
- Sabatelli, R. M., & Bartle-Haring, S. (2003). Family of Origin Experiences and Adjustment in Married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5, 159-169.
- Vailant, C. O., & Vailant, G. E. (1993). Is the U-curve of Marital Satisfaction and Illusion? A 40-years of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230-239.

1 차원고접수 : 2008. 9. 23.

심사통과접수 : 2008. 11. 14.

최종원고접수 : 2008. 12. 1.

## Effects of family-of-origin characteristic and conflicts with in-laws on marital satisfaction

Yeon Ji, Yoo<sup>1</sup>

Hyun Ju, Cho<sup>2</sup>

Jung Hye Kwon<sup>3</sup>

<sup>1)</sup> Leadership Development Team, Future Management Institute, the SK

<sup>2)</sup>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sup>3)</sup>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effects of family-of-origin characteristic and conflicts with in-laws on marital satisfaction. For this purpose, the Family System Diagnosis Scale(FSDS), Conflicts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scale(CBMD), Conflicts Between Mother-in-law and Son-in-law scale(CBMS), and the Korean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scale(K-MSI) were administrated to 274 married couples, and data were analyzed using stepwise regression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irst, husband's family-of-origin characteristic was significant variables that explained marital satisfaction. However, wife's family-of-origin characteristic was not significant variables that explained marital satisfaction. Second, wife's family-of-origin characteristic was significant variables that explained conflicts between mother-in-law and son-in-law. Moreover, conflicts between mother-in-law and son-in-law was significant variables that explained husband's marital satisfaction. Third, husband's family-of-origin characteristic was significant variables that explained conflicts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husband's family-of-origin characteristic had significant path on husband's marital satisfaction. However, this path was not significant for wife. In addition, conflicts in-laws and marital satisfaction had significant path when family-of-origin characteristic was mediated.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Family-of-origin, Conflicts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Conflicts between mother-in-law and son-in-law, Marital satisfaction